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얼마 전 필자가 일하고 있는 동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후원하는 일명 '성북 크리킨디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서울시 성북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물거나 따지지 않고' 직접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이들에게 10만 원을 입금한 것이다. 필요 금액은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이 별도로 개설된 계좌로 자유로운 입금을 하도록 함으로써 마련했다. 후원자와 후원금을 받는 이는 모두 익명으로 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예술가를 비롯해 약 60 여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었다.

프로젝트명에 사용한 '크리킨디'는 남미 케추아 부족의 이야기에서 따왔다. 숲에 불이 나서 다른 동물들이 다 도망치고 있을 때 작은 부리에 한 모금씩 물을 담

포스트 코로나와 지역화

아 와서 산불을 끄려고 한 '벌새'의 이름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뿐이야"라고 말한 벌새 크리킨디의 생각을 담은 것이다.

'성북 크리킨디 프로젝트'의 출발은 또 '오아시스 딜리버리'에서 착안한 것이다. '오아시스 딜리버리'는 김선아 다큐멘터리 감독이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통장 잔고에 있는 여유통을 주변 독립영화인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시작되었고, 여기에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 동참하면서 확산되었다.

또한 '성북 크리킨디 프로젝트'를 곁에서 지켜본 지역 청년들이 '갑자기 통장에 떡볶이가 입금됐다'라는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폭넓은 공감을 일으켰다. '전통예술인긴급연대'에서도 이 아이디어를 통한 프로젝트를 통해 40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행위를 넘어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일종의 연대감과 공통의 감각을 경험하게 해 준다. 공통 감각의 연결은 결국 '움직이는 소수'의 역할이다. 실제로 '성북 크리킨디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11만 원'이라는 낮

선 액수가 입금되었다. 10만 원을 신청해서 받은 예술가가 10%를 얹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후원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일종의 지역 공동체 차원의 새로운 실험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동체 은행이나 협동조합 등 그 이름이 무엇이든 경제적 상호부조의 사례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성북 크리킨디 프로젝트'는 지역 단위에서 공동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를 통한 커뮤니티의 성격에 더한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후원 과정이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연계된 선택과 영향력은 지극히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이다. 놀라운 것은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다수의 페인들이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삶이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근대 혹은 탈근대의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코로나19 사태는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을 요구한다. 선불리 결론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겠지만, 치열한 고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살 것

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지금 시대의 궁극적 대안으로 '지역화'를 강조한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는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결정적 다수를 만드는 것으로서 '큰 그림 행동주의'(big picture activism)를 제시한다.

이론만으로는 시민의식을 높일 수 없으며, 새로운 지역화의 감동적인 사례를 끊임없이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지역화는 소규모 활동을 대규모로 하는 것'이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내가 하는 일과 활동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가까운 곳에서(local), 혹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global) 유사한 활동을 바라보고, 공유하고, 전달하고, 확산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치열한 고민과 싸움을 하고 있는 헬레나는 강조한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인 일은, 이미 열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를 자신과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종교칼럼

'양선'(良善)의 삶



임형준
순천 빛보라교회 담임목사

필자는 글을 쓸 때 글의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제목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비교적 글이 쉽게 써진다. 이미 글의 흐름을 파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 칼럼을 쓸 때 제목을 정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9가지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순서대로 써 가고 있고 오늘은 6번째 성경의 열매인 '양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려고 한다. 이 단어가 익숙하게 사용되지 않아 자칫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이 연구해 보면 참으로 매력적인 내용이 가득하다.

타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자비가 행동으로 실제화되는 것을 양

선이라고 하는데, 자비라는 마음의 상태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양선이다. 사실 자비의 마음은 양선이라는 행동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 쉽거나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 왔던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착함이 행동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동반되어야 하는 수많은 손의 계산과 이기적이고 인색한 습관 등 다양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자비라는 마음의 씨가 양선이라는 생명의 열매로 탄생하는 과정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후한 겨울을 나는 몸부림의 과정처럼 새순과 열매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우리의 마음의 밭은 너무 많은 오류와 상처로 자비의 씨앗을 양선의 열매로 전환하기를 두려워한다. 조직이나 개인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프로세스를 개혁시키는 것을 두려워한다.

양선의 성경적 가르침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구절과 에덴동산의 이야기 속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전쟁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인류의 역사와 자본주의 시장 원리인 감자 생

존의 치열한 경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좀 더 냉정하게 현실의 삶을 평가해 보면 우리는 이미 양선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세상에 죄가 들어와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양선의 삶'이 사라졌다. 그렇다 하면 양선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일 것이다.

양선은 모든 초점을 타인(이웃)에게 맞추어 사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이웃이다. 즉, 자기중심적 삶을 타인 중심적 삶으로 옮겨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가장 낙담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상태를 '상한 갈대와 꺾여지는 심지'라는 시적 표현을 통해 약한 이웃을 향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꺾여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배려와 살림으로 양선의 삶을 회복하길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서두르지 않고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 주는 것, 무시하거나 무조건 비판하거나 무례히 행하지 않음으로 존

중의 관계가 지속되어 서로 상처를 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삶을 실천한다는 것은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내면을 혁명시키지 않고는 지속적인 양선의 삶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모든 관계 안에서 타인의 성향과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로부터 출발하여 상대방의 현재의 처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살피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들은 언제부터 상실해 버렸을까? 조선 후기에 들어온 한국 기독교는 지독한 가난과 병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받는 신앙이 강조되다 보니 양적인 성장과 경제적 인 부를 통해 풍족한 삶을 얻었음지는 몰라도 양선의 삶에서 멀어진 결과를 가져왔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회적 약자를 향하여 낮은 곳으로 나아가 양선의 삶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제 신앙인들은 다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붙들어 내면의 변화와 더불어 이웃에게 관심을 두고 세상을 섬기며 실천하는 삶을 회복한다면, 비로소 양선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기고

지친 일상, 영광 안마도에서 휴식을



홍석봉
영광군 부군수

지난 1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우리 일상을 위축시키고 있다. 마스크 쓰기는 당연한 의무가 됐고 교류와 만남, 행사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항공사, 관광업체, 요식업체 등의 경영난은 심각한 지경이다.

도시민들의 피로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외출하더라도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를 피하는 등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스트레스도 크다. 이런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한 열기 예보까지 나오면서 휴가지를 선택하는 도시민들의 고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와 찜뚱더위에서 벗어나 지친 일상을 위로하길 원한다면 영광 안마도(鞍馬島)를 찾아보기를 권한다.

사람의 밀집이 무엇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섬, 특히 다리가 없는 섬의 경우 여객선의 승객 정원이 있는데다 하루에 오가는 횟수 역시 정해져 있어 자연스레 인원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마도의 경우 여객선이 하루 한 번밖에 없으며, 여객선 정원은 150명(차량 15대)에 불과하다. 물때에 따라 출발 및 도착 시간이 달라지고, 소요 시간이 2시간 20분으로 상당하다는 점도 이 시기에 장점이 될 수 있다. 불편한 만큼 이 섬을 찾는 외지인들은 적을 수밖에 없었으며, 청정한 자연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 한 번 찾은 사람은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보석 같은 섬이 바로 안마도다.

우선 안마도는 육지로부터 먼바다에 위치한 까닭에 수심이 깊어 물이 맑고 깨끗하다. 기온은 인근 육지와 비교할 때 여름에는 1~2도 낮고 겨울에는 1~2도 높아 따뜻하다. 불과 여름에는 파도가 잔잔한 날이 많아 전국의 강태공들이 많이 찾는다. 섬 주위 어디서나 감성돔 놓여, 우럭 등이 잘 잡히고 특히 방파제 주변에서 낚시가 잘된다. 그 밖에 꽃게, 병어, 새우, 해삼

등의 어획량이 많고 야생 약초를 먹고 자란 한우와 5월에 잡은 지내를 말려 독주에 넣어 만든 지내주도 유명하다.

안마도는 먼 바다에 위치해 있어 파랑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섬 주변은 해식애, 해식동, 시 스택(sea stack)이 발달해 있는 리아스식 해안이다. 말코바위, 손오공바위, 사랑바위, 위험을 알려 주는 소리가 나는 동굴바위, 씨쿠리바위 등 장엄한 기암괴석과 거대한 동굴들, 희귀 식물 그리고 60여 종의 새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

안마도라는 지명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모두 말과 연관이 있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이 섬에서 말을 키웠기 때문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살펴보면 안마도 목장에 33필의 말을 방목한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는 임금이 안마도의 양마(良馬)를 골라오도록 하고 안마도에서 말을 치기 편한가를 살펴 아뢰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전남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안마도는 4.327㎢의 면적에, 18.7km의 해안선을 가진 큰 섬이다. 안마 본섬을 중심으로 북동쪽에는 석만도(石蔓島), 소석만도, 서쪽에는 죽도(竹島), 횡도(橫島), 남서

쪽에는 오도(梧島)를 합쳐 안마군도(鞍馬島)를 이루고 있으며, 이 섬들 역시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 이 가운데 횡도는 안마 군도에서 가장 외해에 속하기 때문에 영해 기점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임진왜란 때 모든 섬들이 왜구의 침입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이 섬만 비껴가서 비기섬이라 불렀으며 한자 이름으로 횡도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안마도는 지난해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5년간 50억 원의 예산으로 돌래길 정비, 경관 식물 재배, 안마도 상징 조형물 설치, 방문자 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천혜의 자연 자원을 보존하면서 지역의 잠재력과 테마를 살린 이색 섬 관광지로 조성해 '가고, 오고, 먹고, 자고, 쉬고, 걷고, 놀고, 사고' 할 수 있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300년이 넘는 동백나무 군락과 국내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뽕잎피나무가 자생하는 아름다운 해안 숲을 간직해 서해의 해금강으로 불리는 안마도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도시인들이 몸과 마음의 안마를 받았으면 한다.

社說

5·18 왜곡 세력 이제 그들이 설 땅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역사 왜곡 금지를 골자로 한 5·18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초안을 공개했다.

이형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특별법 일부 개정안 초안이 그제 국회 공청회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개정안은 민주당과 범여 군소정당 의원들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들에 다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5·18 40주년을 맞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5·18을 왜곡·비방·편향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또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국가폭력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해 처벌의 공소시효를 없앴다. 여기에 5·18 왜곡 세력은 물론 내란죄 적용이 어려운 현장 지휘관이나 병사들의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5·18은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온전한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채 왜곡 세력이 판을 치고 있다. 특히 지만원을 비롯한 일부 극우 세력들의 왜곡과 편향은 5·18 관련자는 물론 지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다. 이 때문에 개정안 내용을 접한 5·18 단체와 지역민들은 기대감과 함께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한다. 하나 이는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다. 개정안이 5·18이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것을 방지하지는 것일 뿐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킬 의도는 추호도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우리 지역민의 간절할 염원을 담아 마련된 만큼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가능한 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도 넘어 기초의원들의 잇단 비리야 일탈

광주 기초의회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면서 지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법에 위배되는데도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구청이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예산으로 구입한 기념품을 제 것인 양 나눠 주며 생색을 낸 의원도 있다.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백순선(민주·나 선거구)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업체로 구청과 67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의원이 된 뒤 자신이 운영하던 인쇄·옥외광고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바꾼 뒤 무려 11건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의회가 스스로 만든 의회 행동강령 조례와 윤리강령 조례조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의회 강기석(무소속·라 선거구) 의

장은 올해 의회 예산 600만 원으로 구입한 홍보 기념품(넥타이) 200개 중 166개를 가져가 임의로 지인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커지자 서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지만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보류한 상태다.

주민의 대표라는 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이권이냐 행기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 문제는 비리 의원들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미온적인 태도다. 비리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징계를 미루거나 윤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는다. 민주당 일색의 기초의회에서 경쟁과 감시가 사라진 탓이다.

기초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은 인물 검증에 소홀한 민주당의 공천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권에만 눈독을 들이는 의원들이 의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자체 윤리위를 통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주민소환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無等鼓

올해 6·10민주항쟁 기념식은 '꽃이 피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기념식이 열린 서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고(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당했던 그곳 509호 고문실 창문에는 커다란 장미꽃이 걸려 있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승리의 역사를 장미꽃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엔 6월항쟁 당시 시민들이 경찰에게 장미꽃을 던져 주며 폭력에 저항했던 역사가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서 6월항쟁의 상징은 장미꽃이 되었다.

그러나 정작 '장미의 계절' 5월에 일어난 5·18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뚜렷한 상징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만 해도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노란 리본이 있다. 제주도민의 영혼이 붉은 동백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 없이 스러져 갔다는 의미를 담은 4·3의 동백꽃도 있다. 이처럼 역사적 경험이나 시대적 아픔은 배지나 기호 등의 상징물을 통해 사람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는다.

물론 5·18 기념 배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숫자로 518을 새기기도 하고, 추모탑 사진을 넣거나, 판화 작품 속 이미지를

가져오기도 하는 등 그동안 여러 종류의 배지가 나왔다. 올해는 40주년 기념 배지에 주먹밥 이미지를 넣어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5·18의 의미를 온전하게 담아내지는 못한 듯하다.

필자는 5·18 관련 기사를 편집할 때 주로 두 개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원이 진압봉으로 시민을 폭행하는 저 유명한 사진과 옛 도청 앞 분수대를 중심으로 광장에 수만 명의 시민이

운집해 있는 사진이다. 이 모두 1980년 당시 광주일보(옛 전남매일, 옛 전남일보) 기자들이 현장에서 찍은 것이다.

특히 5월항쟁에서 도청 앞 분수대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한다. 집단 발표의 현장이었고 민족민주대성회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곳이었으며 시민들이 항쟁의지를 다지던 장소였기 때문이다. 분수대 한가운데 태극기가 높이 솟아 수만 명의 광주 시민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분수처럼 쏟아내던 모습을 형상화해 배지나 기념품 등 5·18의 상징물로 삼으면 어떻까 하는 생각이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